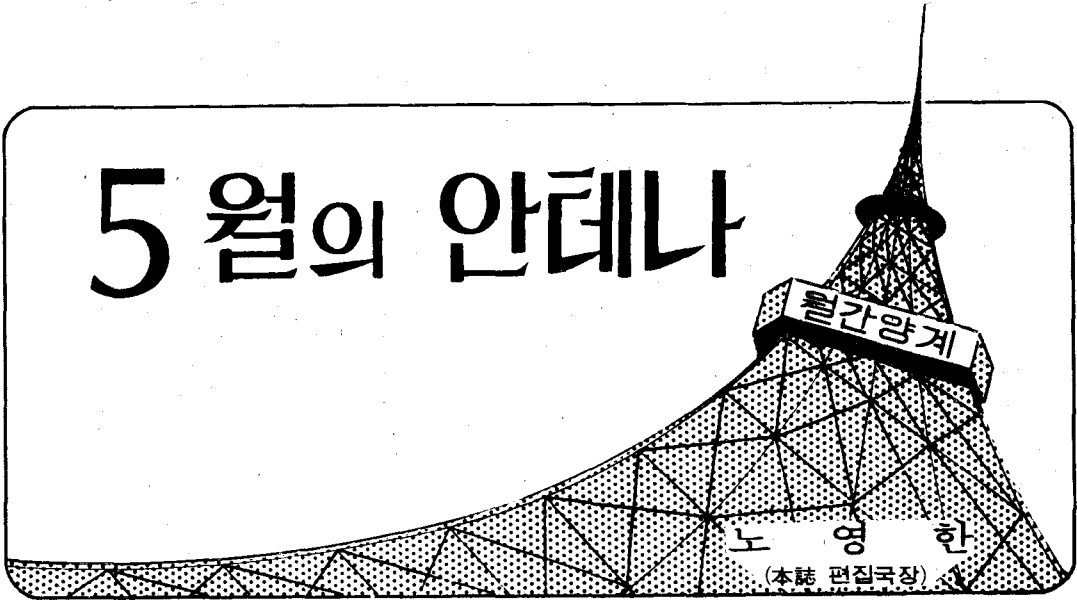


5월의 안테나



양계 산업은 안정되게 발전되어야

금년들어 배합사료 가격 등 제반 양계산물 생산비가 인상되고 79년 불경기에 따라 수수가 감소함에 따라 양계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양계업계의 어려움은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배합사료 생산량을 보아도 얼마나 수수가 감소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닭고기의 경우 생산비가 30여% 인상됨에 따라 비교적 닭보다 농후사료 의존도가 낮은 가축과의 경합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형편이다.

작년 국내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76%에 해당하는 양을 배합사료 원료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양을 공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것도 사료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어 왔다.

또 21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보리소비 촉진 방안의 하나로 복합분(밀과 보리 혼합) 제조와 배합사료 원료로 보리를 대체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재 보리쌀 재고는 약 4백만석에 이르고 있는데 금년도 하곡 수매를 고려할때 재고 과다 현상이 불가피하여 양곡수급의 균형과 소매 옥수수등 도입량을 감축하므로써 외화를 절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양축가는 현재 지나치게 배합사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우려하고 있어 국내 자원의 최대한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도입옥수수와 국내산 보리가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치 않을 경우 축산물의 생산비가 자연 높아져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은 닭고기 계란이나 돼지고기의 소비가 자연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값싸고 단기간 양산이 가능한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수요 육류를 대체한다는 기본정책에 위배되는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값싸게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무제한 공급하여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게 하여도 문제이지만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후사료에 의존도가 높은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생산비가 높아지므로써 육류수요를 쇠고기로 유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보리의 사료화는 업계의 중지를 모으고 충분한 연구검토 후에 결정되어 더 이상 양계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이미 잘 아는바와 같이 5월은 1979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자진 신고하는 기간이다.

79년 양계 양돈불황 등 축산업계에는 걸고 지루한 한해이었으나 국민의 의무인 납세신고 만든 기일을 넘기지 말고 해야 되겠다.

축산업에 대해서는 그간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으로 약간의 혼동이 있는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한다.

조세감면기간조건표

소 득 발생년도	전액면세기간		50%감면기간		비 고
	自	至	自	至	
기	1969	1969			중전 법령 적용
존	1960	1970	1975	1976	
업	1971	1971		1978	
자	1972	1972			
신규업자	1973	1973	1976	1977	이하 조세
	1974	1974	1977	1978	감면규제법
	1975	1975	1978	1979	경과 규정
	1976	1976	1979	1980	적용
	1977	1977	1980	1981	조세 감면
	1978	1978	1981		규제법 제
	1979	1979	1981		4조의 8적
	1980	1980	1981		용
	1981	1981	198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업자는 50%의 감면혜택을 (73년 이전 업자는 혜택없음)

시급한 소비자교육



신규업자는 100%의 혜택을 대체로 받게 된다. 또 기장을 할 경우에는 정산결과 소득 금액이 산출됨으로 별문제가 없으나 부득이 추계과세(소위 인정과세)의 경우는 79년도 소득표준율이 부화업의 경우 12.5%양계업의 경우는 11%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총 외형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나오며 이것을 사업 개시년도가 위의 표에서 속하는 년도에 따라 감면기간이 결정되며 감면의 경우는 감면 신청을 그외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 장애자 의료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치료받은 영수증등 각종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세액확정 신고전에 담당자나, 전문가와 협의후 신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의실에서는 한 국농촌 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이 주최한 축산물가격정책 협의회가 개최 되었다.

이자리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들이 많았으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문제를 축산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한 잘못이다.

우리 축산인이 축산에 애착을 느끼며 천직으로 여기는것 만큼 소비자는 그렇게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영양과 2세 국민을 건강하게 기르고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여 수입되는 쇠고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닭고기 돼지고기를 소비할 것을 애국심에 호소하여 소비자에게 외친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나를 느끼게 하는 회의 였다. 소비자는 값싸게 우수한 품질의 쇠고기를 먹기를 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무리 쇠고기 수요를 줄이고 돼지고기 수요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어도 소비자는 여전히 식관습을 일조일석에 바꿀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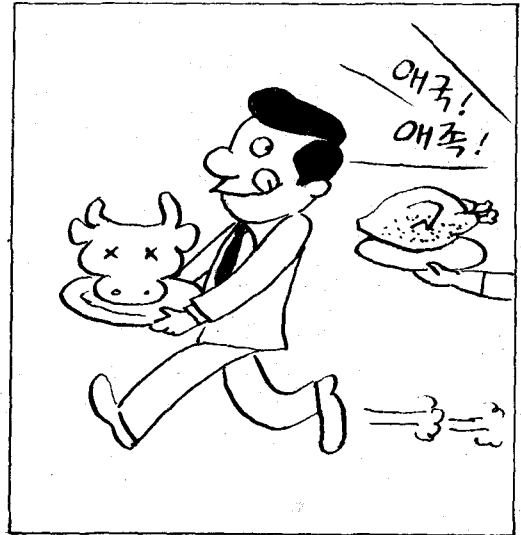
이제우리는 생산 공급 소비를 총괄적으로 다룰수 있는 축산 생산자의 경제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며 우리 자체의 실력을 길러 더욱 소비자 교육을 조직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는 축산이 더욱 발전하기는 어려움을 느낀다.

계획과 구호뿐인 육류의 대체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국민학교부터 학교급식등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느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축산물을 먹지 못하고 식물성 식품에만 의존하는 많은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찢절매고 있음도 알았다.

이제부터 거시적으로 축산발전에 잘못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인상에 따른 내핍 생활로 닭고기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다.

지금 대부분의 부로일러 업자가 출하 해야 할 닭이 많지 않음에도 30일 서울 부근에서 조차 육제가격이 580~600원까지 하락하고 28일 사직공원에서 있었던 생산자들의 움직임 등 부로일러 업제가 회복되는듯 하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5월말이나 6월에는 밀가루 정부미 연탄등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할것으로 되어있어 주부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것 같다.

삼복을 겨냥한 막연한 소비에 대한 기대로 과다 입추를 하지 말고 입추를 조절하여 가격유지에 협조하고, 5월부터 단속이 예상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시행도 가격이 오르면 단속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완화하여 값만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서울 경기 근교만이라도 육제업자가 매주 모여 입식수수등 정보를 교환하여 이번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해야 되겠다.

부로일러 입추조절 필요

4월 1일부터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서울시 전역에 실시되고 또 금년들어 각종 물가